신년패트롤 - 농약과 우리농산물

가락동 농산물 안전성 선진국 수준
부적합률 1.6%로 미국에 버금

가락농수산물검사소, 24시간 건강 · 안전 지키는 파수꾼
생산자, 소비자 신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반드시 지켜야

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은 잡초방제에 소요되는 노동인력을 절감시킬 뿐 아니라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산을 가져오는 필수불가결한 농자재이다. 그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농약은 독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라벨에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농산물 별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해 놓고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외관상 상품적 가치를 좋게 할 목적으로 출하 전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출하한 농산물이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생산자는 가락시장에 한달 간 반입이 금지되는 불행한 일 외에도 검찰에 고발조치 대상이 되어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과 피해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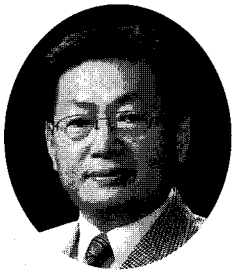
매스콤에 보도될 경우 소비자는 보도된 전 농산물을 외면하고 등을 돌림으로써 가격이 폭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로 인해 해당 농가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그 동안 농민과 소비자간에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 다시 종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땀흘려 가꾼 쌀, 밀 등의 곡류, 과일 그리고 채소는 우리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삶의 에너지원이다. 더욱이 모든 농가 소득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자원인 만큼 모든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자원으로 가꿔 나갈 때 우리 소비자의 식생활이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생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가락도매시장의 24시 가락농수산물검사소 소비자가 믿고찾는 시장 위해 '99년 2월 신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면적을 지니고 있는 이 곳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량은 7천5백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의 식탁에 오르는 전 농산물의 60%를 차지하는 거대한 양이다. 뿐만 아니라 가락시장의 경락가격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대형 물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매장의 시세도 가락시장 시세가 근간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식탁과 직결되는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시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안전농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많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코자 '99년 2월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의 가락농수산물검사소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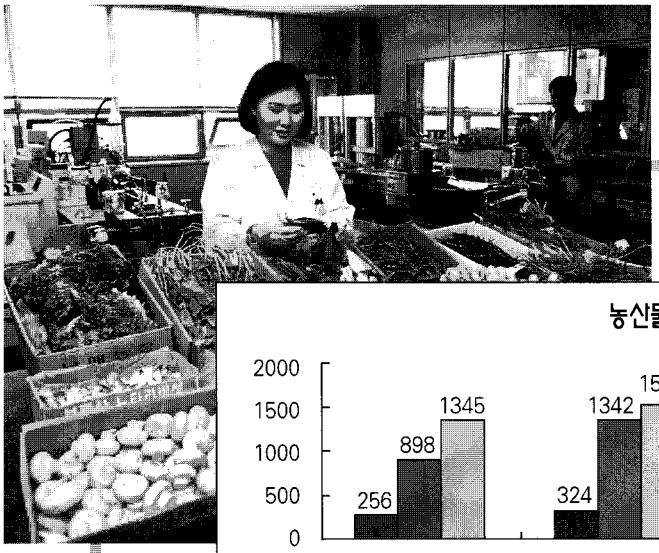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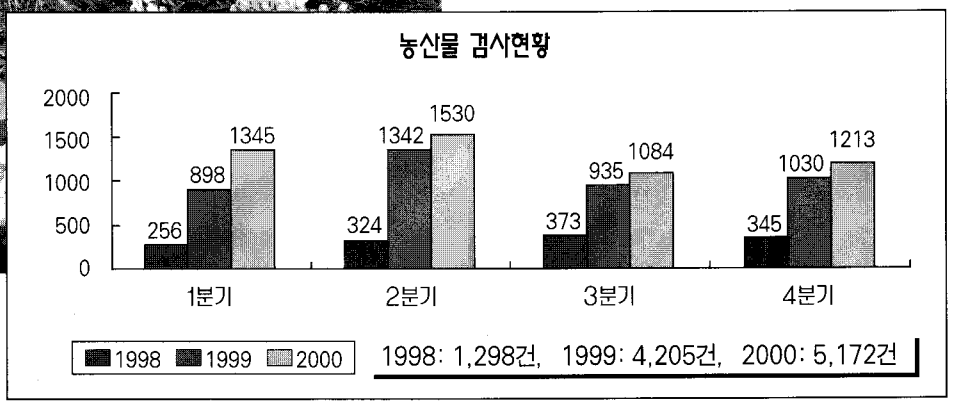
강 희 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가락농수산물검사소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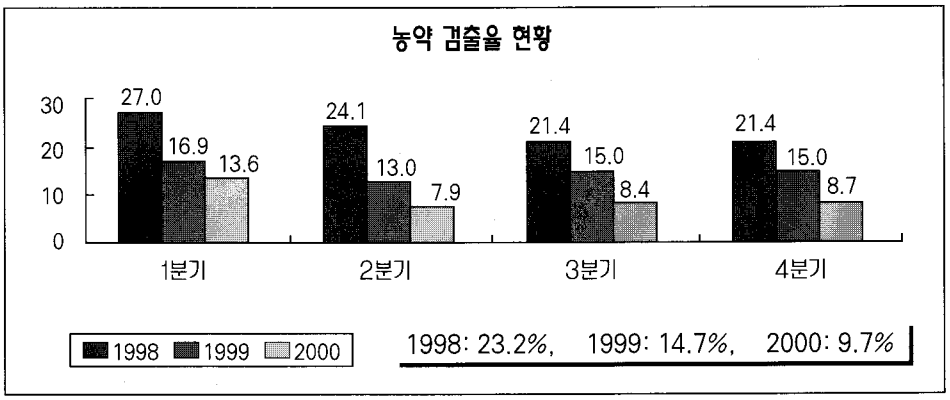
24시간 검사체계 운영 부적합율 1.6%로 선진국 상위그룹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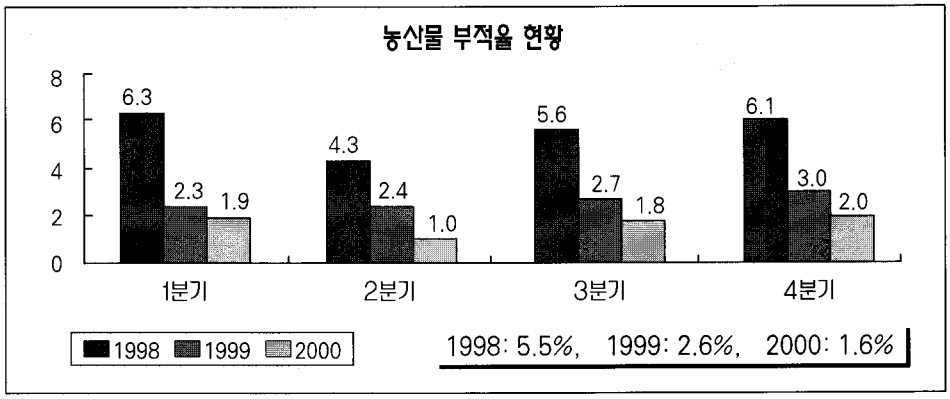
오후 6시경이면 싱싱한 상추와 쑥갓, 깻잎, 배추 등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각종 농산물을 내리고 쌓는 경매장과 주변시장 일대는 온통 활기찬 생동감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야간 풍경이 전개되는 시간, 우리 검사소의 수거반원들은 경매장으로 나가 안전성검사를 위한 농산물의 수거 업무를 수행한다. 2000년도의 검사목표 건수는 5천5백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검사물량을 대폭 늘렸으며 농수산물공사에서도 신속검사를 올들어 11만건으로 확대하였다.

가락농수산물검사소는 천만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4시간 검사체제를 확보하고 있다. 매일 오전 1회 그리고 농산물이 반입되어 상장하기 전 야간에 검사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무작위로 2회, 총 3회 채취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해 농산물의 적·부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신속한 5시간 이내. 이와 같은 신속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부적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관리공사에서도 야간에 4백-5백건의 상장 전 반입농산물을 무작위 채취하여 간이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온 시료는 즉시 현장에 나가 계류조치하고 가락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될 때에는 즉시 폐기조치를 하고 있다.

'99년 2월부터 가락시장에서 24시간 불을 밝혀 안전성검사를 강화하는 등 파수꾼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한 결과, 2000년도 가락

시장의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은 그림과 같다. 연도별 검사물량은 98년도에 비하여 5배정도 강화된 반면, 농산물 농약 잔류율은 '98년 23.2%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는 9.7%로 대폭 줄었다. 특히 부적합율의 경우 '98년 5.5%에 비하여 가락검사소를 신설한 '99년도부터는 현저히 감소되기 시작하여 2000년도에는 1.6%로 나타났다. 이는 가락농수산물 시장에 검사소를 설치, 시민들에게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운영한 직·간접적인 효과일 것이다.

가락시장 농산물의 안전성수준은 아래 표에 나타난 유럽 14개국 및 미국의 농산물 안전성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선진국 상위그룹의 수준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안전성이 향상된 배경에는 서울시의 확고한 시책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튼튼히 지키고자 많은 사람들의 각고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농산물을 올려놓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가락시장의 파수꾼을 자처한 서울시의 공무원들, 현지에서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와 교육에 앞장선 농림부 관계직원들과 농협중앙회 직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불철주야 땀흘려 온 생산자들의 노력이 어울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유럽 14개국 및 미국 농산물 안전성 현황

국 가	검사건수	농약검출률(%)	부적률(%)
벨기에	1,244	43	10.2
덴마크	1,613	33	2.0
독 일	5,345	42	3.4
프랑스	3,673	50	9.6
아일랜드	383	47	4.7
이태리	6,846	21	1.0
룩셈부르크	200	-	3.5
네덜란드	9,465	40	4.0
포르투갈	878	27	3.4
핀란드	2,321	40	3.2
스웨덴	3,140	35	2.7
영국	706	44	1.3
노르웨이	3,005	33	2.1
미국	1,414	29.1	1.6

European Union Harmonized Pesticide Monitoring Program(2) 1998, FDA : Residue Monitoring 1998

검사물량 늘리고 시간은 4시간으로 줄여 경쟁력 확보위해 안전사용기준 꼭 지켜야

올해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연간 검사물량이 6천6백건으로 전년도 5천5백건에 비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사방법의 운영을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정확성과 정밀성이 높은 방법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밀검사 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생산지에서는 출하 전 농약살포를 자제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에서도 품질과 안전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민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서울시에서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곳,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는 명소로 발돋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한 터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진정한 파수꾼으로서 오늘도 밤을 밝힌다. 농약정보